문을 열 수 있는 건 오직 '한 생각' 뿐

영화 '무문관' 4월 19일 개봉

TBC 창사기념 다큐, 영화로 재탄생
무문관 통한 수좌의 구도과정 그려
배우 전무송 씨 무문 스님 역 열연
최첨단 카메라, 특수촬영 영상미
휴스턴국제영화제 종교영화 대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문관'을 기록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어떤 이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곳, 무문관. 그곳에서 천 일 동안 수행한 11명 스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 '무문관(감독 · 박대원, 96분)'이 다음스토리펀딩을 오픈하고 오는 4월 19일 개봉할 예정이다.

5년여에 걸쳐 완성한 영화 '무문관'은 2016년 TBC가 창사 21주년 특집으로 제작, 방송했던 다큐멘터리 '무문관'을 영화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그 동안 수행자가 아니면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무문관과 무문관을 통한 수행의 과정은 선종의 수행법 중 하나다. 두어 평 남짓한 독방의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채우고 하루 한 끼의 공양을 하고, 바깥과 철저하게 단절된 채로 선정에 드는 수행이다. 영화 '무문관'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해가며 천일 동안 고독한 수행을 이어가는 수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화는 2016년 방송되었던 '무문관'과 영상적으로 전혀 다른 작품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무문관을 통한 수좌들의 구도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영상적 형식과 미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 '무문관'은 영화적 형식으로 재구성됐다. 수행자들의 인터뷰를 위주로 구성됐던 전작과는 달리 재연영상을 이용함으로써 영화적 완성도를 높였다.

"무문 스님,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수좌가 물었다. 그리고 수좌는 무문 스님이 내리친 주장에 문 밖으로 나뒹군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조주의 무(無), 그것이 바로 무문관의 첫 번째 관문이며, 이 관문을 이름하여 무문관이라 했다."

영화는 무문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과 내레이션의 프로롤그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양산 통도사 극락암과 서운암에서 촬영한 것으로, 무문 스님 역은 배우 전무송 씨가 맡아 열연했다.

2013년 5월 감포 무문관, 11명 수좌의 천일 무문관 수행으로 이어지는 영화는 월정사와 지장암 기린선원, 부산 해운정사 등에서 동안거 장면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등을 촬영한 영상들로 재구성됐다.

소설 〈만다라〉의 김성동 작가가 참여하여 구성을 다듬고, 4년 동안의 기록을 재편집과 후반 작업을 거쳐 극장용 와이드스크린에 최적화된 색깔을 입혔다. 또한 고품질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알렉사XTS 카메라와 팬텀 고속카메라를 사용했으며, 라이트닝 번개기와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극적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불교의 정중동 미학을 표현하기 위해 타임랩스 촬영, 미속촬영 등 특수촬영으로 순도 높은 영상을 완성했다.

영화 '무문관'은 제50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물질 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종교영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지역 다큐TV부문 작품상, 제20회 일경언론상 대상을 받는 등 방송가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극장용 영화까지 제작되었다.

영화 '무문관'은 수좌들이 수행을 이어가는 3년여의 세월 동안, 흐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계절의 모습을 롱테이크 기법으로 담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선불교의 세계를 특수 촬영기법으로 표현하여 영상 미학 면에서도 깊은 인상을 준다.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무문관'이다.



영화 '무문관'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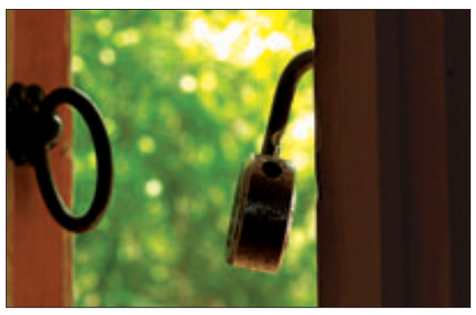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알고 가고자 그렇게 힘들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영화의 주제다.

박대원 감독은 "오탁악세의 오늘에서 수행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4월 19일 전국에서 개봉될 예정인 영화 '무문관'은 지난 7일 CGV 대구점에서 진행된 대구 시사회를 시작으로, 3월 23일 오후 2시에는 메가박스 제주점에서 제주 시사회를 진행하고 4월 4일 오후 6시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 시사회도 계획 중이다.





영화 '무문관'의 주용 장면들.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5월 5일 어린이날, 길상사

(사)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5월 5일(어린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개최한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이번 글짓기 대회를 통해 단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맑고 향기로운 가치관과 예술 창작 기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단위 참가자들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불교 그림 스크래치, 비누 만들기)과 불교문화행사(단주 꿰기) 등을 함께 운영한다.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덕일 스님은 "사찰에서 즐겁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이번 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법정 스님께서 주창한 맑고 향기롭게 운동과 무소유 사상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세대까지 더욱 전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린이날 진행되는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의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부문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제공하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9부터 4월 22일까지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준비물은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 받침대, 돗자리, 물 등이며 대회용 원고지는 행사 당일 접수 확인 후 지급한다.

수상자는 5월 셋째 주에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참가자에게는 맑고 향기롭게 자연 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만든 에코백에 간식과 기념품을 담아 전달한다.

시상은 운문과 산문 각 부문별로 장원(무소유상) 4명, 차상(맑음상) 8명, 차하(향기상) 12명, 장려상 20명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상품권으로 지급)과 상장,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무소유 동화책을 수여한다. 시상식 당일(5월 27일)에는 장원(무소유상)을 수상한 아이들의 수상작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박재완 기자

해인사성보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해인사에서 문화가 있는 날' 2월~12월 마지막 수요일


한지 사각접시 만들기.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선조)은 2018년 2월부터 12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해인사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한다.

해인사성보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 협회가 주관하는 '2018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문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국의 사립박물관 중 44개관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인사성보박물관은 12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 3월에는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움이 있는 '한지사각접시 만들기', 4월에는 수석 전시와 연계한 '수석도 보고 원석 팔찌도 만들고', 5 · 6 · 9 · 10월에는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 답사여행, 팔만대장경 보러 가자', 7 · 8월에는 '바람 솔솔 여름부채 만들기', 11 · 12월에는 박물관 소장유물 모형 몰드로 만드는 '향기 가득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인원은 선착순 30명(협의 가능 · 단체신청 가능)이며, 전화(055-934-3150) 및 이메일(chubonny@naver.com)로 접수한다. 교육 장소는 해인사성보박물관이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해인사성보박물관은 지역민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 · 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성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0여분 전시중!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